

## 베리어프리(Barrier Free) 활동을 통한 무장애도시 만들기 활동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해 “베프(Barrier Free)”를 구축하다.

2013년 이른 봄, 장애당사자들로 구성된 한뼘인권행동(구. 중증장애인인권실천연대)과 함께 연대활동을 모색하였다. 교  
통약자들이 생활하면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 회원 및  
위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즉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제도개선이 용이하면서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활  
동에서 협력하기로 결의하였다.

특히 한뼘인권행동은 회원들과 논의한 결과 도심녹지공원이 주는 심미적 및 기능적 효과들을 몸소 체득하고 싶지만, 공  
원 진·출입로의 단차(턱)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진·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 모니터링을 제안하였다. 푸른천안21실천  
협의회의 중요 지표 중 하나가 ‘무장애 도시 실현으로 휠체어

####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주 소 31099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3길 55  
농업경영인다목적회관 2층

전 화 041-553-2120

팩 스 041-553-2103

이메일 cheonanicsd@hanmail.net

도 유모차도 외출이 즐거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무장애도시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참여하면서 6월에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이하 베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참여 단체는 한뼘인권행동, 한빛회, 평화캠프, 푸른천안21실천협의 회였다.

베프는 참여단체들이 자발적 참여하고 소통과 재미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삼고자 한다. 그 시발점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이자 시민 누구나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현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 무장애 도시의 첫 시발점, 무장애 공원을 꿈꾸다

공원은 공공녹지의 하나로, 여러 사람들이 쉬거나 가벼운 운

동 혹은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정원이나 동산을 말한다.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은 크게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나뉘며,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으로 분류된다. 또한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 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 조례에 의거 생태공원과 놀이공원으로 나뉜다. 이러한 분류에 의거하여 보면 2012년 12월말 천안시에는 246개(조성 165개, 미조성 81개)의 공원이 있다.

베프는 조성된 공원 165개의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도심 73개 공원으로 한정하여 모니터링하였다. 조사 과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자원봉사자 교육과 사전 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7월 한 달 동안 회원과 실무자들이 직접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 공원 진·출입로 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제하는 최소폭인 0.9m보다 넓었지만, 일부 공원은 그보다 좁아 블라드를 제거하거나 위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니터링 공원 중 모든 진·출입 가능 14개(19.2%), 제한적 가능 29개(39.7%), 불가능 30개(41.1%)로 조사되었다. 공원 유형으로 살펴보면 어린이 공원 66개중 52개 공원(78.8%)이 진·출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잠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원의 모든 진·출입로가 경계면 단차(턱높이)가 3cm를 넘지 않고, 진·출입로의 종단 기울기(경사로 포함)가 12° 이하인 모든 진입 장벽이 없는 상태, 종단 기울기는 경사면의 기울기가 1/12이내(약 8°)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베프는 전동 휠체어 사용 매뉴얼(최대경사각 12°)의 안전기준을 고려하여 12°까지를 진입장벽이 없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 조사 항목            | 공원수(%)    |
|------------------|-----------|
| 진·출입 모두 가능한 공원   | 14(19.2%) |
| 제한적인 진·출입 가능한 공원 | 29(39.7%) |
| 진·출입 불가능한 공원     | 30(41.1%) |

| 내 용          | 근린공원 | 어린이공원 | 소공원 | 계  |
|--------------|------|-------|-----|----|
| 진·출입 가능한 공원  | 0    | 14    | 0   | 14 |
| 진·출입 제한적인 공원 | 5    | 24    | 0   | 29 |
| 진·출입 불가능한 공원 | 1    | 28    | 1   | 30 |
| 계            | 6    | 66    | 1   | 73 |

### 정책제언의 미반영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고민하다

2013년 공원 모니터링 간담회는 담당 공무원의 불참으로 단순 활동 보고회로 전락하였으며, 언론 보도와 천안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이후 일부 공원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천안시는 무장애 공원에 대하여 미봉책만 제시하거나 담당 공무원들과의 면담 정도로 형식적으로 대응하였다. 베프 내부에서는 공원 모니터링에 대한 이견이 발생,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대두되었다.

2014년 연말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연초에 준공된 천안시 실내 베드민턴장의 베리어프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뢰하였다. 공단측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문제가 쇄도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베프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시설을 유지 보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베프는 12월 실내 베드민턴장 베리어프리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하였지만, 공단 역시 천안시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즉각적인 반영은 어렵다는 답변을 주었다.

#### 6.4동시 지방선거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제언하다

2014년은 지방동시선거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 역시 중요 화두가 되었다. 특히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전 투표소 운영과 신형 기표대의 보급 등 과거보다 선거제도가 개선되었다. 베프 역시 선거 제도의 변화 속에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투표소의 위치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관공서 내 설치된 투표소 모니터링과 투표 당일 인증샷을 SNS에 게재 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함으로써 투표 참여 캠페인도 병행하였다. 사전 투표소와 투표 모니터링 결과 일부 투표소의 위치, 신형 기표대의 크기와 투표인장의 높낮이 결함에 대한 문제점, 투표 당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나친 배려와 자원봉사자의 사전 교육 미흡 등 모니터링 결과를 천안시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유하였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 마침내 공원내 일부 진·출입 턱 낮춤으로 부분적 “베리어프리” 이룩하다

2015년 봄 공원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천안시 도시건설사업소의 공원 시설보수 계획을 접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담당자와 두 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2013년에 진행된 베프의 공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원의 시설보수시 베프가 참여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천안시 담당 공무원은 진입이 불가능한 어린이 공원 28개를 중심으로 공원 내 진·출입로 1~2개소의 턱 낮춤 공사를 진행되므로 베프가 참여해주길 요청하였다.

| 내 용          | 근린공원       |            | 어린이공원        |              | 소공원        |            | 계            |              |
|--------------|------------|------------|--------------|--------------|------------|------------|--------------|--------------|
|              | 2013       | 2015       | 2013         | 2015         | 2013       | 2015       | 2013         | 2015         |
| 진·출입 가능한 공원  | 0<br>(0)   | 0<br>(0)   | 14<br>(19.2) | 14<br>(18.9) | 0<br>(0)   | 0<br>(0)   | 14<br>(19.2) | 14<br>(18.9) |
| 진·출입 제한적인 공원 | 5<br>(6.8) | 5<br>(6.8) | 24<br>(32.9) | 51<br>(68.9) | 0<br>(0)   | 0<br>(0)   | 29<br>(39.7) | 56<br>(75.7) |
| 진·출입 불가능한 공원 | 1<br>(1.4) | 1<br>(1.4) | 28<br>(38.4) | 2<br>(2.7)   | 1<br>(1.4) | 1<br>(1.4) | 30<br>(41.1) | 4<br>(5.4)   |
| 계            | 6<br>(8.2) | 6<br>(8.1) | 66<br>(90.4) | 67<br>(90.5) | 1<br>(1.4) | 1<br>(1.4) | 73<br>(100)  | 74<br>(100)  |

공원 진·출입로의 단차(턱) 낮춤 현장에서 혹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 공사업자, 베프가 만나 소통하면서 조금씩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천안시의 입장과 시민단체의 입장, 그리고 장애 당사자로서의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불완전하지만 26개 공원 내의 27개소 단차를 낮춰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다.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과거보다 훨씬 보행에 편리하다며, 빨리 더 많은 공원에 단차를 없애 달라고 했고, 공원 내부의 턱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느낌이다.

### 베프는 아직 배가 고프다

하지만 아직도 베프의 해야 할 길이 산적해 있다. 올해 천안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공원의 진·출입로 턱 낮춤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내 1~2개소만 턱 낮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단차(턱) 낮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배수 및 물빠짐, 경계석 파손, 주변 환경을 고려한 공원의 유지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프는 지속적으로 공원 모니터링을 진행함으로써 천안시의 모든 공

원이 무장애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장애차별철폐의 날, 베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도로로 나오는 이유, 무장애 도시란 무엇인지, 보행권과 인권에 대하여 소통하기 시작하였다. 베프 내부에서도 베리어프리라는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내부 비판을 받아들여 시민들의 눈높이로 소통하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와 학생들은 무장애도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높은 편이지만, 주부를 비롯한 성인들의 반응은 바쁜 일상으로 아직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무장애도시에 대한 언론 및 노출 빈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반응과 관심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시작이 반 그렇지만,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지난 3년 동안 베프는 천안의 무장애도시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다. 공원 모니터링에서 투표소 모니터링, 무장애도시 캠페인까지 그리고 지금은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도 무장애도시를 위해서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지만, 지나친 욕심은 과욕이라고 판단하여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특히 공원 모니터링은 이제야 진·출입로의 부분적인 단차(턱) 낮춤이 진행되었을 뿐 모든 공원 내외부의 단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올해 어린이 공원 유지보수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공원별 특성반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괄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무장애 캠페인 역시 네트워크 단체별 일정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은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보다 쉽고 다양한 내용,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최근 새롭게 언급되고 있는 생활편의시설 모니터링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생활편의시설의 개념과 범주가 너무나 넓으며, 네트워크 단체들의 역량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체들의 역량을 고려해 두정동 먹자골목과 터미널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회원들과 실무자 중심으로 건물 내 경사로 설치 유무와 좌식 테이블 유무, 장애인 화장실 유무 등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에 있다. 울산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를 통하여 건물주에게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더 많은 사례를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